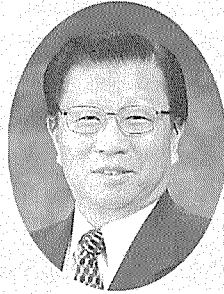


새 천년 우리 석유업계의 당면과제



이 종 원
〈 대한석유협회장 〉

석유는 현대사회의 혈액이라고 할만큼 산업 및 경제활동은 물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하고 값비싼 자원이다. 석유가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아직까지 석유는 에너지원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주종에너지로써, 우리가 입고 쓰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써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전략자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석유자원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97년 겨울철 국민의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야기된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우리경제는 극도로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되었던 상황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국난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압담한 상황속에서 국민의 나날을 보내야 했던 사실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오늘까지 2년동안 국민의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열심히 땀흘려 노력한 결과 새로

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아울러 경제회복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환율이 안정을 되찾았고, 휴지조각처럼 떨어졌던 국내의 증권시세도 각계의 눈물겨운 구조조정 노력에 힘입어 활기를 되찾고 있다. 만성적인 고금리에 시달리던 기업들이 한자리수 이하의 저금리 정책으로 금리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다. 근로자들은 IMF위기로 인한 생계불안에서 벗어나 일하는 기쁨과 보람을 되찾아가고 있다. 무역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다시 국민소득 만불시대로 다가서고 있다.

지난 2년동안 금모으기 운동에서부터 시작된 전국민의 IMF 극복노력이 헛되지 않아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있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발돋움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석유업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또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석유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새천년을 맞고 있는 지금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석유업계의 당면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석유산업 역시 IMF를 전후해서 상당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다. 우선 석유수요를 보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98년에는 15.6%나 감소한 바 있다. 또한 '97년의 석유가격 및 수출입 자유화에 뒤이어 석유산업에 대한 대외개방도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98년에 조기 시행되었다.

그 결과 현재 정유업계는 업계간 구조조정으로 사실상 정유 4사체제로 전환되었으며, 국내 정유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참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더구나, 국내 석유수입업자도 최근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수요둔화 추세속에서 정유업계는 대내외적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와 아울러 앞으로 우리 석유업계가 당면하게 될 환경변화를 살펴보면, 대외적으로는 국제원유가격의 강세와 국제적 환경규제의 강화를 들 수 있다. '99년초만해도 배럴당 10달러 안팎에 불과했던 국제원유가격은 OPEC산유국들의 감산합의가 계속 주효해서 현재 배럴당 25달러에 달하는 등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강세기조는 올해에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94년 발효된 UN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이미 선진국에서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의무화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발개도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내적으로는 석유수요 신장세의 둔화와 에너지원간 경쟁이 심화되는 어려운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연평균 10%이상의 고성장세를 보였던 국내 석유수요는 '90년대 중반부터 증가율이 둔화되다가 IMF 영향으로 '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9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나, 과거에 비해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될 것으로 보여 201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3.5%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에 더하여, 에너지원간 경쟁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NG는 국내 총에너지 소비중 LNG비중이 '90년 3.2%수준에서 현재 9.9%에 달하는 등 석유수요가 급속히 LNG로 대체되고 있다. 또한, 수송용 연료간의 불합리한 조세체계에 따라 LPG(부탄) 수요가 크게 급증함으로써 휘발유와 경유의 수요를 둔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대에 우리의 석유산업이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이러한 여러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업계 자정노력과 아울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방향제시와 지원이 요망된다.

첫째, 업계는 지속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기업체질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 특히, 과거와 같은 외형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경영내실화를 기하여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품질과 서비스 향상 등 소비자 이익의 극대화방안을 강구하여 고객만족 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협약 등 가시화되고 있는 국내외의 환경규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차원에서는 고도화 시설 확충, 석유품질 향상, 오염방지 기술개발 등으로 석유산업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정부차원에서는 합리적인 환경규제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실천해 나가면서,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국내 석유업계의 실리를 추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에너지원간 조세형평성이 확보되어 에너지원간 공정 경쟁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2000년말까지 석유류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체계를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차제에 석유류 부문에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조세

부담 불균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즉, 에너지원간에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의해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에너지원간 공급구조의 왜곡현상을 바로잡아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시 공히 배럴당 1.7달러씩 부과되고 있는 수입부과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즉, 안정적인 석유공급기반 구축 및 국내생산 석유제품의 경쟁력 보완 등을 위해서는 원자재인 원유보다 완제품인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을 높게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그 차등화 폭은 원유와 석유제품간 가치비율 및 외국의 차등관세 사례(우리나라는 현재 원유와 석유제품의 관세율이 5%로 동일) 등을 감안할 때 석유제품의 수입 부과금 수준을 원유보다 3배이상 높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해외석유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석유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명실상부한 수직계열화를 도모함으로써 외국 메이저와 대등한 경쟁력을 배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민간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유사 자주개발원유 도입분에 대한 수입부과금 면제, 세제혜택부여, 특별부담금의 경감 등 제도적인 지원책을 과감하게 대폭 수용해야 한다. 또한 기술인력의 꾸준한 양성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욱이 2010년까지 정부의 자주개발원유 도입률 10%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유개발만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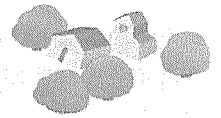
우리 협회는 그동안 우리정부가 애써 다져온 석유개발사업지원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침체상태에 있는 석유개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예산의 증액과 아울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나가려고 한다. 아울러 상·하류부문을 망라한 국내의 정보에 더욱 깊이 있게 접근해서 석유업계가 필요로 하는 고급

정보자료의 신속한 수집과 상호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업계간의 정보공유 활용체제를 구축해 나가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석유산업 역시 21세기 지식주도 경제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기술개발 투자 확대, 물류 효율화, 정보화, 관련 서비스 공급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등을 통하여 종래의 장치중심산업에서 지식집약화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한다.

저급 언급하거나와 아직까지 석유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핵심에너지원이다. 2000년대에도 석유의 주도적 위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원인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업계가 새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을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용어해설



• 색채상표보호제도

색채상표보호제도는 상표권 등록에서 문자, 상표, 도형, 기호외에 색채도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미 등록돼 있는 상표나 글자가 모양은 달라도 색채의 배열 등이 유사해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상표권이 색채와 색채의 배열에까지 확대된 개념이다. 미국은 상표권 등록에서 사용주의(이미 사용하고 있어 일반에 인식된 상표라도 먼저 등록하는 자에게 상표권을 인정하는 것)를 채택, 색채상표보호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